

# 구)경기실크 부지의 문화적 활용방안

## □ 역사와 문화의 도시 여주

-여주문화원 안동희

### ○ 역사: 삼국시대부터 주요한 국토의 요충지

- 남한강 수로를 이용해 한양, 개성, 평양 등의 수도와 바다로 출입이 용이
- 관방 요충지. 비옥한 땅과 물, 기후가 작물 생산의 적지로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거주
- 여주는 드물게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통사를 구성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를 지닌 곳

### ○ 인물: 왕비의 고향

- 고려 원종의 비 순경왕후를 비롯해 조선의 왕비 8명이 여주 출신이거나 고향으로, 여주의 지명과 위상에도 영향 (순경왕후-여흥군, 원경왕후-여흥도호부)
- 여주에 사대부 등 인물이 많았던 이유 \*조선의 통치 이념인 유학의 군자, 선비의 처세에 여주는 적지 -때가 되면 출사하고, 물러나면 낙향하여 안빈낙도의 삶- \*수도 인근에 살면서 조정에 쉽게 출입

### ○ 위상: 1469년(예종 1년)부터 1895년(고종 32년)까지 426년간 여주목의 영광(전국의 20개 목, 경기도 4대목 중 하나)

### ○ 경제/사회: 조선 4대 나루 중 이포나루와 조포나루가 여주에 소재, 물산과 수운의 중심지로 경제적 번영을 구가

## □ 여주는 어쩌다 지금의 여주가 되었을까

- **구한말**(왕조의 몰락) → **근대기**(일제의 국가 인프라 재구성과 수운의 몰락-도로, 철도) → **수운의 이점이 발전의 장애로**(팔당댐, 한강법, 환경부 고시(수변구역)) → **최근**(낙후된 이미지, 도시개발 불가, 원망과 자조) → **그러나 미래는**(당겨진 시위 & 움츠린 개구리 & 새로운 기회의 땅)
- 조선왕조와 영화를 같이한 여주, 왕조의 몰락과 식민지배를 거치면서 쇠퇴의 길로. 근대기에 남한강 주변에 규제가 중첩되면서 지역발전이 정체

## □ 문화재생과 도시의 부활 1. 문화 · 역사적 관점에서

- 구)경기실크 터는, 여주시청 – 여주초 - 대로사와 한 축으로, 여주목 관아와 고려 때부터 이름난 청심루가 자리했던 지역으로 유서 깊은 장소
- 구)경기실크 터는, 청심루에서 조망되는 여주팔경을 유사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곳
- 따라서, 여주의 전통적인 장소애 (Topophilia)인 청심루와 여주팔경이 문화재생·도시재생에 통시적인 개념으로 반영되어 재창조 되어야 할 것임 (공간 디자인, 콘셉트, 콘텐츠 등의 구상)  
\* 장소애란 특정장소에 대한 사랑을 가리키는 것으로, 이 장소애가 특히 잘 나타난 곳이 청심루이며, 여주팔경은 청심루에서 조망되는 장소이다.
- 오래 전부터 여주목 관아와 청심루의 복원 필요성을 제기하는 문화계의 여론이 있으며, 최근 '여주목' 관아와 청심루 복원 학술대회'가 열려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
- 반드시 청심루와 관아가 복원될 것으로 보이며, 구)경기실크 터의 문화재생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점을 면밀하게 고려해야

## □ 문화재생과 도시의 부활 2. 문화재생 사례들

### ○ 동피랑 마을을 살린 공공미술

- \* **통영시**, 낙후된 동피랑 마을을 개발해 동포루를 복원하고 주변을 공원화 계획
- \* **통영의 화가 김영주**, 햇볕이 잘 들어 마치 갤러리 같다고 생각한 동피랑의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자, 마을에 들르는 예술가마다 하나씩 그림을 남김
- \* **동피랑 사람들**, 적막한 골목길에 그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자, 철거 위기에 놓인 동피랑에 공공미술을 활용해 새 숨결을 불어 넣자고 뜻을 모았고, 좁은 골목의 낡은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
- \* **시민단체**, 「푸른 통영 21」이 주민들을 도와 벽화마을을 조성하자, 통영시는 2년에 한 번씩 시비를 지원, 참여 예술인들을 공모하여 두 달을 체류하며 벽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개발계획을 철회
- \* **그리고 현재**, 동피랑과 강구안은 통영의 명소로 재생, 문화·역사·관광의 도시 통영으로 명실상부한 정체성을 확보

※ 개발보다 도시재생을 택한 시민들과 통영시, 그리고 생명력을 불어넣은 예술인들의 합작품



동피랑 마을과 동포루

## ○ 예술의 섬 나오시마

- \* 세계적인 여행잡지 "콩데 나스트 트레블러(Conde Nast Traveler)", 꼭 가봐야 할 세계의 7대 명소 중 하나로 나오시마(直島)를 선정
- \* 1985년 나오시마 섬, 구리 등 중금속을 제련하던 곳으로 쌓여가는 폐기물로 환경파괴가 극에 달하자 사람들이 섬을 떠나기 시작
- \* 이를 목도한 베네세 그룹의 후쿠다케 사장과 나오시마 시장, "인간에 의해 파괴되고 죽어가는 섬의 복원"이란 비전을 공유, "어린이를 위한 지상낙원을 만들어보자"며 의기투합

### □ 문화재생과 도시의 부활 3. 문화재생 사례들

- \* 베네세 재단이 10억 엔을 들여 나오시마 섬의 절반을 사들였고, 일본의 건축가 안도 다다오에게 설계를 맡기면서 나오시마의 아트프로젝트를 시작
  - \* 폐기물 쌓인 죽음의 섬을 예술의 낙원으로 탈바꿈시킨 신화적인 스토리와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세계적인 작가들의 참여, 50년 후를 내다보고 진행된 베네세 그룹 후쿠다케 회장의 예술 경영이 나오시마의 기적을 일궜
  - \* 현재, 일본의 지중해 세토우치 국제 예술제로 탄생, 세계적 명성.  
-세계 7대 여행지로 선정된 예술의 섬 나오시마를 중심으로 세토우치국제예술제가 2010년부터 트리엔날레로 개최
- ※ 낙후된 섬마을이 예술로 화려한 부활,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남



나오시마 섬의 상징 '붉은 호박'(쿠사마 야요이 작)  
출처: <https://tommysdiner.net/4220>에서 갈무리

## □ 이라면 어떨까요? -즐거운 상상!

○ 가칭, '여강 누비 에코뮤지엄' \*누비: 누에의 방언

다음의 사례들을 발굴해서 구)경기실크 터를 '여강 누비 에코센터'나 '뮤지엄'으로 조성한다면 어떨까?

\* 에코뮤지엄(Ecomuseum)은 생태 또는 환경의 의미가 담긴 에코(Eco)와 박물관(Museum)의 의미가 결합한 것으로, 지역 고유의 문화 또는 건축유산, 생활방식, 자연환경 등을 보존 계승한 박물관을 의미

※ 구)경기실크를 문화예술인, 시민, 방문객이 함께 즐기고 어우러지는 공간으로, '여강 누비 에코센터, 또는 뮤지엄으로 재생' 한다면...

## □ 지붕 없는 박물관, 에코뮤지엄

- \* 에코뮤지엄을 최초로 제시한 인물은 프랑스의 리비에르,
- \* 프랑스가 전통 미술관을 제외한 사회, 과학, 자연사 등의 박물관들이 쇠퇴하자, 에코뮤지엄을 대안으로 떠올렸고 농촌과 탈산업지역에서 사라져 가는 민속 유산을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구상
- \* 흔히 '지붕 없는 박물관'으로 불리며 생태박물관, 환경박물관, 지역박물관, 민속박물관, 에코뮤제 등 다양한 형태·의미로 해석

## □ 우리나라는 어떨까요?

\* 국내에도 경기도에코뮤지엄을 필두로 국가중요농업유산 기반의 **부안군 유유마을 양잠 농업유산**, 완주군 생강전통농업시스템, 지역산업에 기반을 둔 강진고려청자 에코박물관,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철암빌리지움, 금강에코뮤지엄, DMZ에코뮤지엄, 섬진강에코뮤지엄에 이르기까지 국내 실정에 맞는 형태로 점차 확대 중

## □ 재생된 문화공간, 어떻게 활용할까 -원칙을 정하자

- \* 구) 경기실크 터가 숙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쳐 시민의 품에 문화공간으로 돌아왔을 때, 문화공간이라는 하드웨어를 어떤 원칙으로 운영해야 할까요
- **원칙 하나**, 문화공간이라고 규정 지어 놓고 전문기관이 운영을 주도하며 시민과 문화 예술인은 주변인으로 전락하는, 문화 주체의 소외(문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)가 나타나지 않아야
- **원칙 둘**, 서툴고 미숙해도 여주사람, 여주 문화예술인이 스스로 성장하고 주도해가는 여주사람들의 문화마실, 문화활동 공간으로 작용
- **원칙 셋**, 적극적으로 멍석을 깔아주되, 자유로운 문화활동을 간섭하지 않는 관리주체(시, 관리기관)

## □ 재생된 문화공간, 어떻게 활용할까요 -공간 구성

- 생활문화, 역사문화, 문화예술, 문화관광 등이 결합되는 모델을 고려하되,  
하나의 콘텐츠로 획일하지 않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고려
- 문화활동공간, 창작공간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만 고정(상주) 하지 않는 레지던시  
(Artist-in-Residence) 프로그램을 고려 -선발원칙이나 프로그램은 규정으로 합의
- 전시, 체험, 문화활동 공간 확보
  - \* 여주사람들과 문화예술인이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 -전시공간
  - \* 지역 학교와 청소년이 제일 희망하는 공간 -청소년 전용 문화활동 공간
  - \*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연장 -끼 있는 시민, 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활동하는 공간

## □ 재생된 문화공간, 어떻게 활용할까요 -고려사항

- 전문인, 단체, 기관의 독점 공간이 아닌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
-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을 최 우선으로 고려하자
-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프로그램을 상설, 방문하면 누구나 즐거운 장소로
-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공간을 계획하여, 장애인과 고령층, 여성을 우선 배려
- 주변과 연계한 공간 및 다양한 대상 프로그램 구축
  - \* 전통 5일장, 한글시장, 여강길 방문객, 주변의 걸어갈 수 있는 문화유적과 명소, 자전거 길 바이크족, 전철과의 연계, 외부 방문객 등

## □ 구)경기실크와 구 도심의 재생과 부활

- 새로운 여주 문화의 탄생, 하동(경기실크) 도시재생이 그 신호탄이 될 수도
- 새로운 장소 & '장소애Topophilia'는 지방분권·문화분권과도 찰떡궁합(정체성)
- 겸손은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닌, 마음을 숙이는 것 -논의의 자세  
-문화재생과 도시재생은 수단과 방법을 정하는 것에 앞서, 여주와 여주 사람들의 영혼을 깊이 성찰하고, 그들 주인 앞에서 겸허해야 성공

**\* 여주시민이 주도하고 온 국민이 향유하는 문화 역사 플랫폼,  
하동 & 구)경기실크 산업문화유산**